

16세기 고문서 吏讀의 예비적 고찰

朴 盛 鍾*

目 次

- | | |
|--------------------|-------------|
| I. 머리말 | V. 동사류 이두 |
| II. 문서 종류별로 본 吏讀자료 | VI. 어미류 이두 |
| III. 명사류 | VII. 부사류 이두 |
| IV. 조사류 이두 | VIII. 마무리 |

[요약]

이 글은 16세기 고문서에 쓰인 吏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및 기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16세기 고문서의 이두를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기술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의 성격을 띤다.

16세기 古文書 중에 이두문으로 작성되었거나 이두가 사용된 것으로는 대체로 民願 및 公證關聯 문서들과 分財 및 賣買關聯 문서들이다. 告身 및 教令類는 일반적으로 漢文으로 작성되므로 배제되나, 간혹 예외가 있다.

한자로 표기된 명사류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양자가 섞인 雜種(hybride) 즉, 混合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중세국어 ‘곧’의 표기는 ‘庫’와 ‘庫叱’로 나타나며, ‘鹿’의 용례는 16세기 고문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듯하다

격조사들은 대체로 그 이전 시기와 거의 같은 용법을 보인다. 주격 조사로는 亦과 弋只/戈只, 그리고 존칭의 教是가 쓰였으며, 대격 조사에 乙, 처격에 良中과 分, 여격에 亦中, 조격에 以가 쓰였다. 그런데, 속격 조사는 矣만이 사용되었고, 공동격 조사로

* 關東大學校 인문대학 미디어국문학과 교수

는 果 이외에 음운론적 교체에 따른 이표기로 쓰인 臥가 발견되었다.

동사류 吏讀 역시 대체로 그 이전 시기의 것을 이어받고 있으나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예컨대, 중세국어의 ‘드디여, 드디여’의 말음절 어미 형태를 보다 분명히 표기하려는 과정에서 종전의 導良 대신에 導亦이라는 표기가 처음 등장하며, 종전과는 달리 대격 조사 없이 체언에 직접 통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어미류 이두 중에는 우선 ‘爲要以’와 ‘爲要乙仍于’에 쓰인 ‘要’와, 연결어미 ‘-니’에 대응하는 표기자 ‘-尼’가 주목된다.

부사류 이두에도 科科以 대신에 科科 만이 16세기 고문서에서 발견되는 점 등의 특징이 발견된다.

주제어 (Keyword) : 16세기 고문서 이두, 16세기 고문서, 16세기 이두, 吏讀, 조선 전기 이두



I. 머리말

이 글은 16세기 고문서에 쓰인 吏讀에 대하여 국어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吏讀史의 견지에서 볼 때 16세기 이두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6세기 이두가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데에 기인한다. 조선 후기 즉, 17세기 이후의 이두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두 표기가 常套的인 성격을 띤다. 그 이전 시기로부터의 관습적인 표기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문서의 양식과 이두문의 종류에 따라 비교적 套式的인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동사 어간에 접미되는 각종 어미들의 표기만 비교해 보더라도, 11세기 경의 이두와 17세기 이후의 이두는 표현의 정밀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마지막 세기인 16세기에 속하는 이두에 대하여 좀더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그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를 포함하여 이두 표기의 변천에 관하여 일반적인 특징 및 각각의 이두 형태들에 대한 표기 변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16세기 이두는 다른 한편으로 이두의 讀音에 대한 추정을 분명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전하는 이두학습서들은 17세기 중엽 이후의 것들뿐이라서, 그 안에 수록된 이두 讀音들은 삼국 시대는 물론이고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 吏讀字들의 讀音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른 시기의 이두를 다룰 때마다 개별 이두자들에 대한 독음 추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실정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을 것임에 틀림없으나, 이와 달리 16세기 이두는 현전 이두학습서들과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기록된 것이므로 현전의 讀音들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동안 16세기 이두 문서는 국사학을 비롯하여 법제사, 경제사, 사회사 등 여러 분야에서 간헐적으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두 자체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한두 편의 이두 문서에 대한 해석과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만이 연구되었을 뿐이다. 吳昌命(1995)은 조선 전기의 이두를 다루면서 16세기 고문서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연구물이다. 그러나, 기존에 활자화하여 소개된 자료들만을 단편적이며 산발적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라서 16세기 고문서를 전반적으로 수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와 같이 16세기 고문서 이두에 대한 국어학계의 연구가 부진한 까닭은 잘 알다시피 자료에 직접 접하기 어려웠던 데에서 말미암는다. 16세기 이두 중 成冊類와 典籍에 기록된 이두 자료에 대하여 일부 연구가 진척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고문서에 기록된 것들에 비해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成冊類의 경우엔 원문서의 형태와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더 나아가 轉載 과정에서의 오류가 적잖이 있을 개연성 때문에 자료로서의 純正度가 고문서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여러 기관과 연구소 등에서 고문서를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간행하여 왔으며, 이 중에 16세기 고문서가 포함되어 있음은 학계 및 문서소장가와 문화애호가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일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古文書集成』 연속물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과 연구소, 박물관, 지방자치단체 및 향토연구회 등에서의 고문서 자료집 발간 사업에 대해 경하해 마지 않는 바이다. 특히, 금번에 지금까지 알려진 16세기 고문서를 모아서 이를 가까운 시일 안에 자료집으로 간행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의의와 학문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른 모든 학문 분야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지만, 국어학계로서는 이두 연구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한층 더 심화함으로써 바야흐로 이두 연구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16세기 이두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이두사의 기술을 위한 토대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료에 입각한 충실한 이두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연구 결과라 하겠다.

이 글은 16세기 고문서에 쓰인 이두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및 기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두 형태 각각에 대해 시시콜콜히 언급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므로 굴절 형태별로 그 편린만을 소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16세기 고문서의 이두를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기술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의 성격을 띤다.

Ⅱ. 문서 종류별로 본 吏讀 자료

16세기 고문서를 대상으로 畵文이 漢文으로 작성되었는가, 吏讀文으로 작성되었는가

에 따라 구분해 보면 문서의 종류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편의상 문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¹⁾ 이를 종류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I. 官僚關聯 文書

1. 告身類: 紅牌·白牌, 告身教旨(追贈, 教牒 포함), 贈諡教旨, 賜牌教旨 등
2. 教令類: 教書, 諭書, 有旨, 傳教, 封書, 批答
3. 疏筭狀啓 및 關牒通報類: 上疏, 狀啓, 牒呈 등
3. 기타: 祿牌, 外交, 差定帖, 尺文 등

II. 民願 및 公證關聯 文書

1. 所志類: 所志, 上書, 單子, 原情, 議送, 等狀 등
2. 立案類: 決訟, 繼後, 買賣, 分財 등
3. 戶籍類: 戶口單子, 準戶口, 기타 戶籍

III. 分財關聯 文書

1. 衿給文記
2. 和會文記
3. 別給文記
4. 遺書 및 其他

IV. 賣買關聯 文書

1. 奴婢買賣文記
2. 土地買賣文記
3. 기타: 牌旨, 手標 등

V. 기타

1. 共同體關聯 文書: 完議, 鄉案, 鄉錄, 洞案, 洞約 등
2. 기타: 婚書, 祭文, 試券, 史草, 司馬榜目 등

첫째, 고문서 중 이두문으로 작성되었거나, 이두가 쓰인 것은 위의 분류 중 II. 民願 및 公證關聯 文書, III. 分財關聯 文書, IV. 賣買關聯 文書들이다. 이것은 조선 시대 거

1) 문서에 대한 이 분류는 古文書學的인 관점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해본 것에 불과하다.

의 모든 문서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III-4. 4. 遺書 및 其他에 속하는 문서 중에는 한문으로 작성된 것도 있음은 물론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所志類 중에 上書는 흔히 한문으로 작성되나, 말미에 ‘爲只爲(헝기삼), 向敎事(아이산일)’ 등의 이두 문구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와 달리 I. 官僚關聯 文書 중 告身類와 敎令類는 대체로 한문으로 작성되었다.²⁾ 그런데, 告身類에 속하는 문서 중 賜牌敎旨, 그리고 3. 疏筭狀啓 및 關牒通報類에 속하는 것 중에서 狀啓와 牒呈, 그리고 3. 기타로 분류된 것 중 差定帖 등에는 이두가 일부 사용된다. 조선 초기 문서에서도 1399년의 趙溫 賜牌를 비롯한 賜牌敎旨들은 이두문으로 작성되었으며, 1457년의 雙峰寺와 醴泉龍門寺에 내린 減役 사패교지에도 ‘乙良(-오란)과 같은 이두토가 사용되었다. 16세기 고문서 중에는 사패교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차정첩에는 역시 이두가 사용되었다. 예컨대 김해김씨 문중의 1572(宣祖 5) 차정첩<정39-22>³⁾에서도 ‘良中, 爲去乎’ 등의 이두토가 사용된 이두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V. 기타 類로 분류된 문서들 중 1. 共同體關聯 文書 : 完議, 鄉案, 鄉錄, 洞案, 洞約 등은 대체로 이두문으로 작성되거나 이두가 사용되지만, 2. 婚書, 祭文, 試券, 史草, 司馬榜目 등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III. 명사류

吏讀文으로 쓰인 16세기 고문서 중에는 명사류에 해당하는 한자 표기들이 빈번히 나타난다. 이들 명사류 한자 표기들 중 몇 개의 예들⁴⁾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고찰해 보

2) 광산김씨 문서 중 金緣의 1529년 加資敎旨<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一; 1-4-3>에는 교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두자 ‘敎是’가 사용되는 등 간혹 예외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지 본문에 쓰인 것은 아니므로, 교지는 일반적으로 한문으로 작성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吏曹嘉靖八年二月十二日奉

敎承議郎守司憲府持平兼春秋館記注官金緣爲奉直郎守司憲府持平兼春秋館記注官者

嘉靖八年三月 日

先農 親祭敎是時執事加己二別加并超

3) ‘정39-22’는 정신문화연구원 발행 『고문서집성』 39책의 22쪽을 가리킨다.

4) 이 글에서 제시한 용례들이 16세기 고문서에서 처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15세기 말까지의 자료에서는 사용되었던 것들이 16세기 고문서에서는 그 용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기로 한다.

(1) 고유어 명사 표기⁵⁾

庫/庫叱(곧), 俵音(다담), 衿(깃), 兒貌(중>जू), 白活(말팔), 捧上(받자), 斜只(빗기), 召史(조이), 阿只(아기), 印(글), 節(디위), 持音(디남), 他(늬)

(2) 한자어 명사 표기

價本, 公緘, 關/關字, 記下, 答通, 到付, 同生, 磨鍊, 邊, 消息, 所志, 立案, 詮次, 切隣, 題給, 灸周

(3) 混合語⁶⁾ 명사 표기

件記(붙기), 衿記(깃기), 衿付(깃부), 分衿(분깃), 斜出(빗출), 上下(자하>차하), 卜定(집녕>지녕), 葉作(엽질), 作文(질문), 尺文(자문), 頓下(탈하)

위 (1)은 모두 한자로 표기되었으나 국어로 읽히는 것들로서, 고유어 명사를 표기한 것이다. 이와 달리 (2)는 한자를 그 음으로 읽으며 한자 본래의 의미에도 부합되는 한 자어들로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이다. (3) 혼합어의 경우엔 예컨대 斜出(빗출)과 같이, 한자를 그 음으로 읽는 것과 우리말로 새겨 읽는 것이 섞여 있다.

가 적잖다. 고유어 명사 중의 ‘結負, 畝主, 上項 次知, 한자어 명사 중의 ‘田出 遲晚 陳省 出納’, 그리고 혼합어 명사 중의 ‘公反, 向前’ 등이 그 예들이다. 이들 중에는 제도나 법령 등의 소멸 및 변화에 따른 데에서 연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단어 또는 표현이 출현함에 따라 대체되거나 소멸된 것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용례를 면밀히 추적함은 물론, 16세기 고문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하여도 목록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後稿로 미룬다.

- 5) 소괄호 속의 한글 讀音은 15세기와 16세기 국어 어형을 참고로 하여 추정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朴盛鍾(1996 : 93-151)에 따른다.
- 6) 이 글에서의 混合語라는 명칭은 학술 용어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雜種 또는 雜種語 즉, hybride에 해당된다. hybride는 automobil(auto 희랍어 ‘自 + mobil 라틴어 ‘動)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 요소가 합성된 것을 가리킨다. 『언어학사전』(이정민·배영남, 박영사, 개정증보판, 1987, 425쪽)에서는 영어의 hybrid word를 television을 예로 들면서 混成語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混成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contamination(독일어는 Kontamination)의 譯語로서 사용된다. contamination은 두 단어를 그릇되게 통합한 것 예컨대, smog(←smoke + fog), brunch(←breakfast + lunch)와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통사적 차원에서는 불어의 je me rapelle과 il me souviens의 혼성으로 나타난 je me souviens와 같은 구성을 가리킨다. Terminologie zur neueren Linguistik(1974)와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1973), 李基文 譯(1955 : 註 122 및 237) 참조.

위 (1), (2), (3)은 일별하여 한국한자어라 할 수 있다. 한국한자어라면 일반적으로 漢字를 한자 본래의 훈과는 전혀 다르게 읽거나, 한자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 그리고 한자를 결합하여 만든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한자문화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한다. 특히,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각각의 한자를 ㅍ - 정확히는 韓國漢字ㅍ으로 읽는 것이 위 (2)의 한자어 명사들이다. 따라서, 한국한자어를 좁게 해석할 때는 위 (2)의 한자어만을 지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1)과 (3)을 어디에 귀속시킬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그 독음은 어떠한 위 (1), (2), (3)을 일단 함께 묶어 넓은 의미의 한국한자어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한자어의 관점에서 위 예들을 검토해 볼 때 문제되는 것이 물론 있다. 우선, 국어 단어를 표기하기 위한 단순한 借字表記를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 중 阿只(아기)와 같은 예는 한국한자어에서 배제된다. 이 글에서는 노비의 이름을 비롯하여 지명 등과 같은 고유명사 표기는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들 고유명사 표기 역시 한자로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한자어라 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한자를 그에 해당하는 우리말로 새겨 읽은 경우이다. 위 (1) 중의 衿(깃), 兪/貌(중>죽), 他(늬)이 그 예이다. 他의 경우엔 주로 이두의 속격조사 ‘-矣’와 결합한 경우에 한하여 ‘늬’으로 읽혔다. 兪/貌의 새김은 『訓蒙字會』와 『新增類合』에서 ‘죽’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衿의 새김인 ‘깃’은 원래 ‘소매’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것이 ‘뒀’을 가리키는 단어와 聲調까지도 정확히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뒀’을 가리키는 吏讀字로 사용되었던 것이다(李基文 2003 참조). 따라서, 衿의 경우는 한자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었으므로 한국한자어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兪/貌(중>죽)와 他(늬)의 경우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韓國漢字는 또 사정이 다르다. 한국한자의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인 ‘ㅈ’은 한국한자어에도 귀속된다 하겠다.⁷⁾ 국어의 단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만든 한국한자들도 일반적으로 이에 속한다. ‘麤’이 그 예에 해당된다. ‘僂’의 僂 역시 국어의 동사 ‘다디-’를 표기하기 위해 만든 자인데, 이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7) 韓國漢字와 韓國漢字語의 개념은 좀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朴英燮(1995 : 111-112)가 양자의 구별에 다소 참고가 되나, 본고에서의 논지 및 입장과 약간 차이가 있다.

‘倂是-’와 ‘倂音’ 등과 같이 말음첨기자가 덧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모든 한국한자들이 한국한자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뽻’(갈)과 ‘투’(겨) 등과 같이 특정한 의미 없이 단순히 表音하기 위해 만든 한국한자들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한국한자어가 아니라 吏讀라는 관점에서 위 (1), (2), (3)의 예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吏讀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乙’(-을), ‘-良’(-아/야), ‘爲 旃’(호며) 등과 같이 우리말 吐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吏讀를 협의로 정의한다면 위의 예들은 모두 배제된다. 위의 예들은 모두 명사를 표기한 것들인 까닭에 문법 형태소 표기가 아님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부사와 같은 비굴절어의 표기도 아님 역시 두 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위의 예들은 일부만을 제외한 채 한국한자어의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즉, 역사 및 법률 등의 制度史나 고문서학을 비롯한 해당 학문의 분야에서 일단 세밀히 검토하고 비교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吏讀라 할 때에는 순수한 한문도 국문도 아니면서 우리말 어순에 따른 문장 표기로서, 漢文式 成語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통칭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필요 또한 있다. 국어학의 관점에서 이두를 협의로만 해석하게 되면, 결국 우리말 단어 중 문법형태소와 토 표기에 쓰인 한자들을 비롯하여, 우리말 중 부사 및 동사 어간, 그리고 일부 보통명사를 표기한 한자들만을 대상으로 다루게 된다. 가령 吏讀 辭典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이두만을 수록하고 각종의 한국한자어를 모두 배제한다면 그 경계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위 (1),(2),(3)의 예들을 넓은 의미의 이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장을 취한다. 16세기 고문서에 위의 예들과 같은 각종의 한자 표기들이 나타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중의 한두 예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庫, 庫叱

‘庫’가 한자 본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창고’를 가리킨다. 釋譜詳節에서는 ‘倉은 갈물 씨니 나들 갈물 씨라 庫는 천량 7초아 뒷는 지비라’ <釋譜詳節 9.20 ㅈ>라고 주석문에서 풀이한 바가 있다. 16세기 고문서에서도 ‘창고’의 뜻으로 쓰인 한자어의 용례가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의 예 (4)가 그것이다.

- (4) 各官距平壤 至近之地 如順安肅川及三縣安州以北 時方督捧還上 稍 〃 皆入於官廩 <풍산유씨 狀啓 정15-434 壬辰九月 9-10행 >

그런데, 吏讀字로 쓰인 ‘庫’는 대체로 ‘田畝이 위치한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쓰이는데, 이따금 가옥과 전답을 합한 ‘處所’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 1570년 別給文記 <영남고문서집성 1-192>).⁸⁾ 그러므로, 吏讀字로 쓰인 ‘庫’는 중세국어의 ‘곳’(處), 근대국어 및 현대국어의 ‘곳’에 정확히 대응한다. 成宗實錄과 『萬機要覽』 등에서도 ‘庫’가 이두자임을 분명히 밝혀 놓은 것이 있어 참고된다.

- (5) 俗謂田之所在爲庫 <成宗實錄 54 권 6년 4월 辛丑>
庫者(庫 俗音곳)猶言處也(卷4, 財用編 3, 戶曹各掌事例 會計司)

이두자로 쓰인 ‘庫’는 이미 고려 시대 자료에서 나타나는데, ‘庫庫’와 같이 복합어로도 사용되었다. 16세기 고문서에서도 이두자 ‘庫’가 발견됨은 물론이며, ‘庫庫’의 용례 역시 발견된다. 다음의 (6)은 고려 시대 용례이고, (7)은 16세기 고문서에서의 용례이다.

- (6) 鹽田 七庫 山田 三庫 并 三結 七十ト <1221-6 修禪社寺院現況記 17>
昇平郡 葦長伊村 鐵谷村 新谷村 未叱 庫庫 并 十結 五十… <1221-6 修禪社寺院現況記 7>
- (7) 柯亭子 畝 二 庫乙 金士元 處 許給 <풍산유씨 분재기 정16-36 67행>
州伏瓦家一坐 家近處 庫庫 合 全數果 <1543년 분재문기 59행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그런데, 15세기까지의 자료에서는 이두자 ‘庫’로만 나타나고, 국어의 받침을 표기하기 위한 자 즉 末音添記字가 쓰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서 말음침기 표기

8) 『大明律直解』에서는 전답과 상관 없이 단순히 ‘處所’를 뜻하는 이두자로 사용된 예가 보인다.
上書 及 申聞事良中 免赦是如 當言爲乎 庫良中 不言免赦爲於 <明律3.3 ㅎ>
公貼良中 錯書 庫 有去等 書人乙 坐罪遣 <明律17.4 ㅈ>

자가 쓰이기 시작한다. 중세국어의 ‘곧’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庫叱’이라는 표기를 사용한 용례가 발견되는 것이다. 이 경우 ‘叱’은 전통적으로 국어의 ‘스’을 표기하는 字인데, 중성의 ‘ㄷ’을 표기할 마땅한 자가 없어서인지 간혹 중성의 ‘ㄷ’ 표기에도 원용되었다. 다음의 예 (8)과 (9)가 그에 해당된다.

- (8) … 畚 拾 斗落只 內 伍 斗落只 庫叱乙 永永 納上爲白乎矣<1546년, 土地明文38, 정 32-452 4행>
- (9) 田畚 五十余 石落只 內 畚 九 斗落只 庫叱分 耕食是如 爲乎等用良<1595년, 李定 立案, 영남고문서집성 2-295 4-5행>

위의 ‘庫叱’은 두 글자로 분명히 나누어 썼다. 따라서, 국어의 ‘곧’ 또는 ‘곳’을 표기하기 위해 두 자를 합쳐 만든 자인 ‘麤’의 용례는 16세기 고문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듯하다.

○ 公緘과 答通

‘公緘’은 書信으로써 劾問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또는 劾問하기 위해 官에서 보낸 書信을 뜻한다. 經國大典에 따르면 公緘으로써 推問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여 놓았다.

- (10) 以書劾問 謂之公緘 <世宗實錄 48 12년 6월 庚午>
凡不囚者 公緘推問 七品以下官及僧人 直推 <經國大典 刑典 囚禁>

公緘에 대한 答信은 ‘答通’이라고 한다. 조선조 이두문에서 答通은 대체로 公緘에 대한 것만이 용례로 발견되나, 서신·물음·기별 등에 대하여 회답하는 글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公緘과 答通의 용례는 15세기와 16세기 고문서 자료에서 때때로 발견된다. (11)은 15세기의 용례, (12)는 16세기의 용례에 속한다.

- (11) 節 公緘 內 <1469 田養智妻河氏粘連文記 2-31>
公緘是白有亦 <1480 金孝盧粘連文記 5-3>

故別侍衛金孝之妻黃氏 公緘答通 內 <1480 金孝盧繼後禮曹立案 09>

金淮妻盧氏 公緘答通 內 <1483 金孝盧繼後司憲府立案 36>

(12) 財主公緘答通是乎等用良 相考爲乎矣 <1517 光山김씨 입안, 정1-583 33-34행>

財主貞夫人崔氏處 公緘答通是沙餘良 各人招辭是置有亦 文記 推納 相考爲乎矣 <1537

경주손씨 粘連立案5 慶州府立案, 정32-269 02-03행>

參知朴大立處 公緘問備答通內<1567 朴大立 繼後立案 12 행 『향토연구』19집, 1996>

○ 上下

上下는 「羅麗吏讀」에서 ‘차하’, 「語錄辨證說」과 「吏讀略解」에서 ‘츠하’, 『儒胥必知』에서 ‘츠아’ 등으로 읽고 있다. 이들 독음 중 ‘차아’는 ‘ㅎ’음이 약화되어 默音化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上下는 ‘지급하는 일’을 통칭하는데, 주로 ‘관아에서 돈이나 물품 사람 등을 내어 주거나 내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小倉進平(1929 : 213) 및 梁柱東(1946 : 714)는 上下가 ‘差下’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이런 견해는 ‘上’자는 字意와 상관 없이 차용된, 假의 원리에 의한 借字로 보아 ‘上 = 差 = 차’라는 관점에서 추론한 것으로 여겨지나, ‘上’의 독음이 발생 당대부터 ‘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古今釋林』의 羅麗吏讀에서도, 上下를 ‘차하’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上’자에 대한 주석에서는 ‘上’자 還上捧上外上 皆曰 차’로 설명하고 있음이 참고된다.

上下와 관련하여 주목할 이두는 捧上이다. 上下는 捧上和 일종의 대립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上下에서 주된 의미 기능은 ‘下’가 담당하고 있으며, 捧上에서는 ‘捧’이 담당하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捧上은 고려 시대 尙書都官貼에 그 용례가 보이는데, 上下는 15세기 이후 자료에서 발견된다. (13)은 조선 초기 및 15세기의 용례이고 (14)는 16세기 고문서에서의 용례이다.

(13) 凡 各司 捧上上下 錢糧等物亦 重記 施行爲有去乙 次知官員亦 正數以 捧上上下 不冬爲遣 <明律07.07스>

官物乙 捧上 上下 不平爲在乙良 <明律 10.03스>

向前 寶長 色掌等乙 並只 黜送 同 寶長等 任意 上下爲臥乎 <1407 長城監務關字>

(14) 立票事乙良 開春即時 同田 上下 頭乙注乙以 尺量 許給事 <1588 土地明文 정32-529>

IV. 조사류 이두

이 글에서는 16세기 고문서 이두에 쓰인 격조사만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주격 조사

주격 조사에는 亦, 教是, 弋只/戈只가 쓰였다.

亦은 이두의 대표적인 주격 조사이다. 이것은 중세국어의 주격 조사 ‘- |/이’에 대응하는데, 고려 시대 이두에서 이미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조 말까지 연면히 사용된 자이다. 비존칭의 모든 명사들에 두루 통합되어 쓰이며, 복수 접미사 ‘等’과 통합된 ‘等亦’의 용례도 적잖이 발견된다. 이 경우 ‘等亦’은 중세국어의 ‘들히’에 대응된다.

(15) 矣徒等亦 證筆以 使內白乎 所 的是白乎事<1521 경주손씨 粘連立案2, 정32-260 08-09>

其等徒等亦 茶禮大宴以 說導爲臥乎 所 加于 未便爲白乎於<1560 경주손씨 粘連立案 10 정32-279 116-117>

後次 族親 等亦 無子息寡婦矣 奴子是去 向入 爭望爲行去乙等 <1599 경주손씨 所誌 정32-133 03-04>

大明律直解와 養蠶經驗撮要에서는 주격 조사로 쓰인 ‘是’의 용례가 몇 군데 발견된다. 그러나, 고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격 조사에 ‘是’를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16세기 고문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격에 쓰이는 吏讀吐에 ‘教是’가 또 있다. 이것은 존칭명사에 통합되어 사용된다. 흔히 이를 근대국어의 ‘-피서, -겨서, -겨오서’와 관련지어 해석하여 왔다. 이 존칭 주격 형태를 반영한 표기가 ‘教是’일 것으로 추정하여 왔다. 15세기 국어에는 존칭의 주격 어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두 자료에서 존칭의 주격 어미 ‘教是’는 이미 고려말인 14세기 중엽부터 등장한다(李丞宰 1992: 108). 따라서 시각을 달리하여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주격 조사의 표기에 쓰여 왔던 전통적인 이두자 ‘亦’을 대신할 이두자를 이 시기에 찾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이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⁹⁾ 是의 존재 역

시 바로 그러한 代替字의 한 시도의 결과로 이두문에서 한때 사용되었다고 본다. 敎是'는 바로 이 '是'에 대한 존칭표현에 쓰인 이두자이다. 이 때 '敎(是)'는 문법범주에 상관 없이 존칭표현에 두루 쓰이는 자로 해석된다. 즉, 일종의 존대표지인 것이다. 16세기 고문서에서도 존칭의 주격 조사 예는 적잖이 발견된다.

- (16) 右 文段 父母 敎是 生存時 <1545 재령이씨 分財記 정33-249 02>
 家翁父忠贊衛金孝源 敎是 自己婢妾子 北間矣 并産 所生等乙 <1531 광산김씨 분재기 정1-585 02-03>
 白等 繼後母黃氏 敎是 去 庚子年分 <1517 광산김씨 입안 정 1-16 16>
 金孝之妻黃氏 敎是 無子息乙 仍于 <1517 광산김씨 입안 정1-16 25-26>

이두의 존칭 주격 조사 敎是和 16-17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존칭 주격 형태 '-피셔, -겨셔,¹⁰⁾ -겨오셔'와의 관련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손이셔'(星山別曲)의 '-이셔'와는 어느 정도 연결되는 듯하다. 그런데, 15세기 고문서에서는 간혹 上級官衙가 평칭 대신 존칭으로 표현되어 주격 조사 敎是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16세기 고문서에서는 그 용례들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것은 자료가 충분치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좀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7)은 15세기에서 관아에 대한 주격 조사의 쓰임이 隨意的이었음을 보여 준다.

- (17) ㄱ. 節 禮曹 敎是 <1483 金孝盧繼後司憲府立案 01>
 ㄴ. 同 禮曹 亦 臣矣 身叱分 不喻 四六寸孫子等乙 <1483 金孝盧繼後司憲府立案 08>

'ㄱ'도 주격 조사에 쓰인다. 이것은 단체나 복수명사의 주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추정해 왔다(朴喜淑 1985 : 102, 李丞宰 1992 : 109). 그러나, ㄱ只는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존칭명사와 비존칭명사, 그리고 數에 상관 없이 두루 쓰인다. 高正儀(1992)에서 잘 밝

9) 釋讀口訣에서 주격 표기자로 쓰이던 ㄱ가 順讀口訣에서 ㄴ로 바뀌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물론 현재 이 두 구결자의 原字는 모두 是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자형의 변화가 곧 문법형태나 음운상의 변천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있다.

10) 아바님겨셔 이감 닉 덩 빠니 호고 유무 가느니 피양군 디괴 즉시 던호라 호신다 <순천김씨 무덤 편지 133, 조항범(1998 : 612) 참조 >.

힌 바와 같이 大明律直解에서의 용례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15세기 고문서에서도 주격으로 쓰인 용례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16세기 고문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 (18) 同 縣監亦 遞期 至近 女矣 身_ㄱ只 先歸本土乙 仍于 棄置孫兒 可憐爲乎等用良<1525 재령이씨 分財記 정33-247 05>
 矣徒 同生等 只 和會分執爲去乎 各各 執持爲乎矣<1592 재령이씨 李涵男妹 分財記 정33-269 03>
- (19) 繕工監假監役官 李忠聖 遷轉 本 守倫 只 進叱使內良如爲 口 傳施行爲有置有等以 <1593 趙守倫차정첩 국사편찬위원회 0583>¹¹⁾

위 (18)에서의 只는 주격 조사로 쓰였으며, 이두에서의 주격 조사 亦과 그 기능이 전적으로 같음을 알 수 있다. (19)의 只는 단순한 주격 표지 이외에 ‘-으로, -으로서’라는 자격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어 보격으로서의 기능도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하겠다.

주격 조사 표기에 쓰인 이두자 只는 전통적인 주격 조사 표기자 亦 과 음상이 매우 유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체로 국어의 주격 조사가 ‘*_ㄱ-익’과 유사한 형태를 취했을 당대에 음상이 유사한 亦(*jik)을 이두자로 차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그 후 ‘亦’의 한자음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두 표기에서는 전통적인 관습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이해한다.¹²⁾

한편, 주격 조사로 쓰인 戈只의 용례도 16세기 고문서에 보인다.

- (20) … 族類_ㄱ只 乃 雜談相爭爲去乙等 <1580 부안김씨 명문3 정2-669 05>

戈只는 只의 異表記이다. 이는 取形의 원리¹³⁾ 즉, 자형이 유사한 다른 자를 대응하는 원리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朴喜淑(1985 : 101)도 戈只를 字形의 유사에서 비롯한

11)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소장자료목록 - 사진자료 - 첩 참조.

12) 이와 달리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과 관련하여 亦의 音價가 ‘역 > 익’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이두 표기에 쓰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南豐鉉(2001) 참고. Karlgren의 한자음 추정 역시 고대 단계의 jək이 후에 jik으로 변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관해서는 한자음의 층위와 도입 시기 등과 관련된 해답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13) 取形의 원리에 따른 이두자 代用에 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朴盛鍾(2003 : 302-305)를 참조.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李承宰(1992 : 108)은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弋’字 대신에 사용빈도가 높은 ‘戈’字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戈只가 나오게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2. 屬格 조사

중세국어에서는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그리고 존칭명사와 비존칭명사의 구별에 따라 속격 조사가 엄격히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비존칭의 유정명사에는 속격 ‘-이/의’가 통합되었고, 무정명사 및 존칭의 유정명사에는 속격 조사 ‘-시’가 통합되었다. 이두에서도 고려 시대에는 양자가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이두에서는 속격에 矣와 叱이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중세국어의 ‘-이/의’와 ‘-시’에 대응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 초기 이두에서 속격 표기가 점차 矣로 통합되어 표기되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大明律直解』에서 속격 叱의 용례는 다섯 개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속격 조사 矣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의 선행명사는 유정명사인 積이 확인된다(高正儀 1992 : 62-63). 그러나, 『養蠶經驗撮要』에서는 이미 속격의 叱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矣만이 사용된다. 이에 따라 무정명사인 ‘左伊(자리)’의 경우에도 矣가 통합되었다.

16세기 고문서 이두에서도 속격 조사에는 矣만이 사용된다. ‘叱’ 자는 사람 이름 등의 고유명사 표기(예 : 注叱同)나 ‘叱分’(썸), ‘叱段’(썸) 등의 표기에만 사용될 뿐이고, 속격 조사로 사용되어 후행하는 형식명사를 제외한 다른 명사류를 수식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叱’이 속격 표지에 쓰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5세기 이두에서 보이던 ‘等叱’(트렛)과 같은 어형도 찾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3. 對格 조사

중세국어의 대격 조사로는 ‘-고’를 비롯해 ‘-을/을, -를/를’의 이형태가 쓰였다. 이두에서는 대격 조사로 ‘乙’만이 사용된다. 대격의 乙은 音假字로서, 慈寂禪師碑 陰記(941년)에 처음 나타난다. 이두도 乙은 이두문에서 일반적으로 동사의 목적어에 통합되어 쓰인다. 그러나 이 乙이 다른 격에 쓰이기도 한다. 이것은 乙이 단순한 대격이라기보다는 주제화의 의미 기능을 띠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다. 이는 고려 시대 이두에서도 이미 散見된 바 있는데, 조선 초기 이두에서도 적잖은 용례를 찾을 수 있다.

대격의 乙에 보조사 ‘-사’가 덧붙은 이두토 ‘乙沙’가 조선 초기 이두에서 사용되었는데, 16세기 고문서에서도 그 용례가 확인된다. 용례 중 (21)은 조선 초기, (22)는 16세기의 용례에 해당된다.

- (21) 貧者乙沙 差定爲彼此 回換 作弊爲去等 <明律 04.06 ㄴ>
 須只 毆乙 仍于 傷爲在乙沙 論爲遣 <明律20.04 ㄴ>
 同 白巖寺乙沙 資福寺良中 求望 冒受 關字 下去爲去乎 <1407 長城監務關字>
 種子高致乙良 薪開出時 須只 薪中間外面近處 向陽造作者 及 飛介 上良中 造作者乙沙 擇取爲乎 喻尼 <養 蠶3 ㄴ>
- (22) 矣徒等乙沙 崔氏亦中 不干人是如 爲在而亦 <1560 경주손씨 粘連立案10 정2-279 32>
 祖母文記乙沙 無理是如 論計爲遣 <上同, 131 행>

4. 處格 조사

16세기 고문서에서 처격 조사의 이두자로는 주로 良中이 쓰였다.

良中은 良에 中이 복합된 형태로 추정된다. 이것은 기원적으로 처격 어미 ‘*-아에’ ‘*-기’가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의 良은 訓假字이다. 光州版 『千字文』에서 良을 ‘알 량’으로 읽은 것이 그 증거이다. 처격 조사 良中은 고려 시대의 淨兜寺石塔形止記(1031년)에 처음 나타난다. 16세기 文書類 중의 일부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3) 二口良中 折 楮貨 各 四千張 捧上爲遣 <1552 풍산유씨 所志, 정15-614 06-07>
 九月 初四日分 身死後良中 隨母 養育 居生爲旆 <1585 풍산유씨 所志, 정15-622 08>
 後次良中 別爲 所 有去等 <1593 진성이씨 稭連문기, 정41-413 18>

처격 조사 良中은 보조사들과 통합하여 쓰인다. 이에 따라 ‘良中沙, 良中置, 良中乙良’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16세기 고문서에서는 ‘良中沙, 良中置’의 용례들이 발견된다.

- (24) 繼祖母 崔氏 奴婢乙 祖父 生時良中置 漢城府 入籍爲白乎旆 <1560 경주손씨 粘連立案10, 정32-279 103>
 同 叔母 死後良中置 其所執持奴婢乙 並只 推尋 不冬爲有如可 <上同, 22>

同祖母衿得奴應孫婢延非等段 丁亥年分 財主 使用爲乎矣 同年文記內 某衿 **良中置** 現付
不冬爲有如可 丙辰年 崔世溫 成置是如 爲臥乎 文記**良中沙** 同奴應孫延非所生等乙
<上同, 244-245>

처격 조사는 이따금 良만으로도 표기되었던 듯하다. 고려 시대 釋讀口訣에서는 ‘ㄱ
+ , ㄱㄷ’(아기, 앓)과 같이 통합형만이 발견된다. 그러나, 고려 시대 順讀口訣에서는
‘ㄱ’(아)가 처격에 빈번히 사용되었다. 현전하는 이두 자료의 빈약성 때문인지 조선조
이전의 이두 자료에서는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데, 大明律直解에는 (25)에서 보듯 처격
조사 표기에 ‘良’ 자만 쓴 용례 넷이 발견된다. 高正儀(1992: 66-67)에서 잘 밝혔듯이,
처격의 良은 良中과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15세기와 마찬가지로
16세기 고문서에서 처격의 良은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 (25) 同 僚官亦 文案 **良** 同 着署爲在 五人內良中 一人亦 有私情爲在乙良 <明律 01.34ㄱ>
- 凡 徒流人果 遷徒人果 充軍人果 囚徒人等乙 決斷後 **良** <明律27.3 ㅎ>
- 徒流罪**良** 犯爲在乙良 唯只 決杖一百遣 <明律01.19b>
- 監臨勢要之人乙良 官吏矣 合死罪 **良** 減一等齊 <明律26.03ㄱ>

‘分’이 날짜를 표시하는 단위인 年과 月, 日에 연결되어 쓰여 처격으로 사용된 예들
이 보인다. 이 ‘分’은 원래 실질명사였을 터이므로, 엄밀히 분류하자면 접미사에 귀속시
켜야 할 것이다. 年과 月 뒤에 ‘分’ 대신 처격 조사 良中 을 사용한 예가 있음은 물론이
다.

- (26) 九月 初四日**分** 身死後良中 隨母 養育 居生爲旆<1585 풍산유씨 所志, 정15-622
08>
- 祖亦 去 己丑年**分** 在京 身卒爲良在乙 其年 八月**分** 祖母 崔氏 陪喪 還鄉爲有如可
<1560 경주손씨 粘連立案10, 정32-279 33>
- (27) 崔得忠亦 崔氏奴婢乙 嘉靖三十九年**良中** 來推爲有去乙<1582 경주손씨 所志3, 정
32-130 03>
- 丁亥年**良中** 祖父亦 時任 左參贊以 下鄉爲有如可 <1560 경주손씨 粘連立案10, 정
32-279 44>

이두자 ‘分’은 다음의 (28)에서 보듯 중세국어의 ‘-회’에 정확히 대응한다

(28) 前年 회 말 비홀 제(前年學語時) <杜詩諺解 초간 8.47 자>

회다가 내년 회 물어디거든(假如明年倒了時) <朴通事 초간 上10>

위 (28)의 용례는 古文書에 흔히 나타나는 ‘…年分’에서 ‘年’ 字를 音讀하였으며, ‘分’은 국어로 새겨 읽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회’에 대응하는 字를 왜 ‘分’으로 표기하였는지가 의문이다.¹⁴⁾ 여하튼 이 ‘分’은 15세기 자료들에 이미 나타나는, 낱짜 표시 단위 뒤에 쓰인 ‘中’과 연맥되면서도 그것과 또 다른 변화의 일면을 보여 준다. 양자의 존재는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一見하여 ‘分’ > 회’로의 변천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 둘 사이에는 중간 단계의 형태를 상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음의 변화 역시 간단하지는 않다고 본다.

5. 與格 조사

여격 조사는 이두에서 亦中으로 표기된다. 그런데, 亦中은 원래 기원적으로는 처격 조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시대 석독구결에서는 ㅅ+(아기)와 ㅅ+/(여귀)가 혼용되었다. 이들을 原字로 복원하면 良中과 亦中이 된다. 따라서 양자는 이형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李建植 1996 : 155). 亦中은 고려 시대의 이두에서도 거의 대부분 처격에 사용되었다(李承宰 1992 : 112). 그러나 조선 초기 이래 이두문에서의 亦中은 대체로 현대국어의 ‘-에게’에 일치한다. 다만, 亦中이 처격 조사로서의 기능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도 이따금 발견되곤 한다. (29)는 여격으로 쓰인 예이고, (30)은 亦中이 처격으로 기능하고 있는 예이다.

(29) 子息孫子等亦中 都許與 成給爲白乎 事段 <1517 광산김씨 입안 정1-16 39-40>

己未年 喪妻後 二男妹亦中 各 分給爲遣 <1581 광산김씨 분재기, 정 1-540 02>

(30) …是如 不給爲乎 第亦中 <1566 宋寧妻등 同生 和會文記 02, 서울대 『古文書集眞』 1972, 190 쪽>

14) 중국 한문에서의 용법이 유입되었다가 이것이 이두문에서 독자적으로 확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나, 이 문제는 남겨 두기로 한다.

위 (30)의 ‘亦中’은 결코 ‘-에게’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엔 처격의 의미를 지녔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거의 모든 명사 뒤의 亦中이 ‘-에게’로 해석되는데, 유독 이들만이 처격인 ‘-에’로 해석되는지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동명사 어미에 통합되어 쓰인 ‘亦中’ 또한 여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31) 矣身亦 現身爲乎亦中 同生兄 現身 不冬是如 累日 囚禁爲白在果 <1583 재령이씨 立案, 정33-189>

위 (31)은 동명사 어미 뒤에 亦中이 결합한 예이다. 동명사 어미 뒤에서는 처격 어미인 良中이 통합된 예가 전혀 없다. 이는 이두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동명사 어미들은 명사적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당연히 처격 어미 良中과 통합된 어형이 있음 직한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亦中과 통합된 어형만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此亦中’의 용례이다.

(32) 此亦中 婢 硯今 二所生奴 金漢年 庚辰生矣 身乙良 陵洞 山直 定體爲去乎 <1527 풍산유씨 分財記 1, 정 16-36 22>

위 (32)는 지시대명사 ‘이’에 해당하는 ‘此’에다가 처격 어미 ‘亦中’이 연결된 예이다. ‘此亦中’은 대체로 ‘이에, 여기(에), 이 중에’ 정도의 문맥적 의미를 가진다. 이것을 여격으로 처리하여 ‘이에게’로 풀이할 수는 없다. ‘亦中’은 후대 이두학습서들에서 ‘여회(儒胥必知), ‘여회’(羅麗吏讀), ‘여해’(吏讀集成) 등으로 읽었다. 이들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5세기 국어의 ‘이어기, 여기’는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 ‘良中’과 ‘亦中’은 모두 처격 어미로 사용되던 이두도였다. 그런데, 위 용례들을 검토해 보면, 양자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亦中’은 그 앞에서 선행문장이 일단 끊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亦中’은 명사 뒤에 붙는 단순한 처격 어미가 아니라, 선행명사와의 사이에 무엇인가가 개재된 형태인 듯하다. (32)의 ‘此亦中’은 바로 15세기 국어의 ‘이어기, 여기’에 정확히 일치한다.

이를 감안해 볼 때 ‘亦中’은 기원적으로 지시대명사 ‘이’에 본래의 처격 어미가 통합된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결국 동명사 어미나 일종의 補文名詞인 ‘第’ 뒤에서 ‘良中’이 통합되지 않고 ‘亦中’이 통합되는 까닭을 설명해 준다. 고려 시대 釋讀口訣만

하더라도 처격 어미는 매우 복잡다기한 양상을 띠고 있다. ‘}+, >+, +, >+/>+’가 나란히 사용될 뿐만 아니라, 명사와의 통합이 隨意的인 성격을 보이는 등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들은 일단 기원적인 처격 어미 ‘*아’, 그리고 ‘*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는 처격 어미 ‘아’와 후치사적인 요소를 가진 處所指示語 ‘기’의 결합으로, >+는 속격 어미와 ‘기’의 결합으로 파악된다.¹⁵⁾ 그런데, >+/>+만큼은 지시대명사 ‘이’와, 처격 어미 ‘아’, 그리고 ‘기’로 달리 분석할 소지가 있음을 제기해 둔다.

6. 造格 조사

이두문에서 ‘以’자를 한문의 구성소로 보아야 할지 이두자로 보아야 할지 자못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잖다. 그 어느쪽으로 보더라도 文意에 별다른 차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의 養蠶經驗撮要에는 한문에서 일반적으로 ‘…부터 …까지’라는 표현에 쓰이는 ‘自… 至…’의 ‘自’ 대신에 ‘以’를 쓴 용례가 나온다.

이두의 격조사로 쓰이는 以는 그 의미 기능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도구, 자격, 원인, 방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 (33) ㄱ. 功賞以 一口乙 擇給後 其餘乙良 分給爲乎 事<1527 풍산유씨 分財文記 1, 정 16-36 36>
 ㄴ. 其餘乙良 長幼次序以 平均 分給爲乎 事 <上同 24행>

위의 두 용례만 보더라도, ㄱ에서는 ‘-以’가 자격을 주로 나타내는 데 대하여 ㄴ은 방편의 의미를 띠고 있다.

조격 조사 以는 等에 통합되어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의 ‘等以’는 중세국어의 ‘드르’에 일치하는 어형이다.

- (34) 啓依允教事是去 有 等以 合行立案者<1575 掌隸院 奴婢立案 14, 『古文書集眞』 1972, 229면 영인수록>

15) ‘기’에 대하여 南豐鉉(1977)은 지시대명사 ‘그’와 기원적인 처격 어미 ‘*의’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關是去 有等以 <1593 단양우씨 牒呈臚草 7-5 19>
凡 孝養 盡心 奉行爲乎等以 <1592 부안 제주고씨 별급명문 2-3행>

7. 共同格 조사

공동격 조사로는 果가 쓰였다. 이것은 고려말의 호적문서에서 쓰인 바 있으며, 大明律直解에서도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다. (35)는 16세기 고문서에서의 용례이다

(35) 李從允亦 子息果 成置 白文許與內 <1517 광산김씨 입안, 정1-583 36>
必于 家舍 傳得爲良置 女子 傳得 家舍果 新故大小 不同乙 仍于 <1533 진성이씨 분
재문기, 정41-482 09>

이두에서의 공동격 조사 果는 선행명사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교체를 보이지 않는다. 즉, ㄹ이나 i, y 뒤에서는 𪛗가 사용될 법하나, 𪛗는 이두의 공동격 조사로 쓰이지 않는다. 𪛗는 이두에서 주로 선어말어미 기능의 형태소로서 ‘-누-’로 읽히는 수가 많기 때문에 국어의 공동격 조사 ‘-와’의 표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듯하다. 결국, 형태소 단일 표기의 원칙이 이두에서 지켜지는 셈이다. 그런데, 16세기 고문서 중에는 예외적으로 음운론적 교체에 따른 이표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36)에서 공동격 조사로 果 대신 𪛗를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36) 貳拾伍斗落只 庫 𪛗 永 ” 相換爲乎矣 <1552 경주손씨 土地明文 69, 정32-483 06>

한편, 이 果에 다른 격조사가 통합된 형태들 즉, 果亦, 果乙 등이 大明律直解에서는 간혹 사용되었으나, 16세기 고문서에서는 찾기 힘들다.

V. 동사류 이두

동사류 이두는 단일동사와 복합동사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이두의 문법형태소들이 연결된 동사 어간 표기자들은 혼동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導良’은 중세 국어의 ‘드되여, 드터여’에 정확히 대응하는 이두자이므로 ‘導’ 자를 ‘도로 音讀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또한, ‘持是-’ 역시 중세국어의 감안해 볼 때 ‘디나’ 정도로 읽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6세기 고문서에서도 이 용례가 발견됨은 물론이다¹⁶⁾. 이두의 복합동사들 중에는 ‘白傍是-’(슌다디-, 의성김씨 입안<정6-15 450행>)과 같이 동사 어간끼리 직접 결합한 것들이 많다.

단일동사 중 ‘導-’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導-’는 중세국어 동사 ‘드되-, 드디-’에 대응하는 이두자이다. ‘導良’은 후대 이두 학습서들에서 ‘드되야(吏文, 吏文大師), 드되여(吏文大師, 典律通補), 드디아(吏讀便覽), 드디여(儒胥必知)’ 등으로 읽혔는데, 중세국어의 ‘드되여, 드디여’에 정확히 대응된다. ‘導良’은 ‘좃아, 따라서’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신라 시대 이두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를 근거로 하여’라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南豐鉉 1990: 56). 동사 導-는 대체로 대격을 지배하는데, 체언에 직접 통합되어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대명률직해에는 (37)에서처럼 처격 조사에 후행한 용례가 보이며, 16세기 문서에서는 (38)과 같이 체언에 직접 통합된 예들만이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37) 前矣 已決罪數乙 通計 後罪良中 導良 充數決罪齊 <明律01.36 ㅎ>

(38) 家翁 遺言 願意 導良 <1531 광산김씨 분제기, 정 1-585 05-06>

父母 教令 導良 畿甸 田地 買得次以 <1572 재령이씨 土地明文, 정 33-422 04-05>

한편, 16세기 고문서 중에는 導良 대신에 導亦이라는 표기가 있어 주목된다. 이것은 ‘良’ 자는 일반적으로 ‘-야’로 읽히기 때문에, ‘드되여/드디여’의 말음절 ‘여’를 좀더 정확히 표기하는 과정에서 ‘良’ 대신에 이두자 ‘亦’을 대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그 이전 시기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던 導亦이 새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39) 元財主 區處 導亦 各執使喚爲在 …<1583 재령이씨 立案, 정33-189 045>

遺書 導亦 同容亦中 奴婢 并 拾口 家舍 田畝 并以 先可 許給爲在果 <1539 고성이씨 입안 점련문기 04-05>

願意 導亦 別給爲去乎 <1530 경주손씨 分財記4, 정32-357 03>

16) 의성김씨 입안 <정6-15 105행 및 217행> 참조

VI. 어미류 이두

어미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이분할 수 있다. 이 중 이두의 선어말어미는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敬語法：-白-, -教(是)-
- ② 叙法：-去/良-, -置-
- ③ 時相：-有-, -臥-, -如-, -在-
- ④ 意圖法：-乎-

그런데, 특이한 점은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리-’에 대응하는 형태가 이두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이두 표기자료는 ‘要’가 있다. 大明律直解에서 ‘爲要’의 용례를 몇 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중 ‘爲要 爲’의 문맥에 쓰인 경우의 ‘-要’는 15세기 국어의 어말어미 ‘-오려/우려/려’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6세기 고문서 이두문에서는 ‘要’ 뒤에 ‘以’가 통합되어 (40)과 같이 ‘-要以’로 나타난다는 점도 특이하다.

- (40) 上京爲要以 濟州馬 一匹良中 沙員 三斗落只 慶州 外坪員 等 庫果 永永 相換爲去乎
 <1558 경주손씨 土地明文99, 정32-513 02-03>
 買馬爲要以 矣買得耕食爲如乎 成字一百五十九番 六卜伍東庫乙<1588 土地賣買明文
 도산-6 03>
 棺槨埋葬爲要以 別給 及 立案 導良 <1594 입안, 영2-286>

또한 (41)의 ‘爲要乙仍于’의 용례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爲要’가 명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점은 앞으로 좀더 면밀히 고찰해 볼 대상이다.

- (41) 營葬之事 辦出 爲要乙仍于 父前 別得 婢 延今 四所生 婢 …<1593 立案, 영2-281>

어말어미는 종결어미와 동명사어미, 그리고 연결어미로 양분할 수 있다. 이 중 종결어미로는 평서형에 ‘-齊-, -亦’, 의문형에 ‘-去’가 쓰이며, 명령형으로는 ‘-如’가 사용된다.

동명사어미 중에 ‘-ㄱ’은 ‘-ㅍ’으로, ‘-기’는 ‘-只’로 표기되나, ‘-ㄴ’과 ‘-ㄹ’은 뚜렷한 표기자가 없이 ‘乎’와 ‘在’에 포함되어 쓰인다. ‘-ㄹ’이 관형형으로 쓰일 경우에도 ‘爲乎事’(혹을 일)처럼 생략표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16세기 문서 중에는 간혹 ‘乙’ 자로서 ‘-ㄹ’을 분명히 드러내어 표기한 것이 있다.

- (42) 典守奴婢亦 遠地上典 奉祀 遲緩 爲乎乙 喻良置 <1590前後 光산김씨 분재기, 정1-557 148-149>
- 金山 身死後 執耕 爲乎乙 事 <1561 진성이씨 分財記 정41-491 13-14>

연결어미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결어미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선택법 : 去乃
- ② 나열법 : 遣, 於, 在果
- ③ 도급법 : 巴只, 只爲
- ④ 의도법 : 乎爲
- ⑤ 구속법 : 昆, 去(乙)等, 去乙, 良尔, 如中
- ⑥ 설명법 : 乎矣
- ⑦ 전환법 : 如可
- ⑧ 방임법 : 良置, 而亦, 乃
- ⑨ 가치법 : 音可
- ⑩ 강세법 : 去沙/良沙
- ⑪ 연결법 : 良, 尼

16세기 고문서 중에는 연결어미 ‘-니’에 대응하는 예가 쓰였다. 이 어미는 양잠경험 활요에서 한 번 쓰였을 뿐 그 용례를 발견하기 힘든 편이다.

- (43) 兩家子孫 互相契好 是加尼 <의성김씨 完旨, 정6-170-2>

VII. 부사류 이두

부사류 이두는 순수부사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

다. 후자에는 동사의 부사형, 그리고 명사에 조격 어미 ‘-以’가 통합된 것이 主宗을 이룬다. 그런데 순수부사에 속하는 이두자가 극히 적은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순수부사로 볼 수 있는 ‘唯只, 並只, 最只’ 등은 그 어형의 유사성이 주목된다. 동일한 파생접사를 취한 형태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부사나 아니냐의 관점보다는 형태상의 유사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부사류 이두자들이 대체로 實辭를 앞세우고 있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거의 대부분의 부사류 이두자들이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漢字를 앞세우고 있으며 音借字가 뒤따르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경우 선행 漢字는 訓讀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音讀되는 경우도 결코 적잖다. 音讀된 한자들도 기원적으로는 訓讀했을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본다. 해당 의미를 지니지 않은 漢字를 音假字로 사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중세국어의 ‘비록’에 해당하는 이두자 ‘必于’가 있다.

부사어 이두자들을 마지막 字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以’型
并以/並以 詮次以
- ② ‘-亦’型
獨亦, 專亦, 初亦, 便亦
- ③ ‘-良’型
更良
- ④ ‘-于’型
加于, 必于
- ⑤ ‘-只, -可’型
並只, 先可, 唯只/惟只
- ⑥ ‘-如’型
今如, 兒如/貌如, 右良, 爲等如
- ⑦ 其他
科科, 物物, 凡矣, 這這

위의 분류 중 ‘右良’을 ⑥ ‘-如’型에 귀속시킨 까닭은 右良은 본래 右良如에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 연원을 따져 분류하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① ‘-以’型

중의 ‘并以並以’는 동사 어간에 부사화 접미사가 통합된 것이므로 ④ ‘-于’형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엔 并于가 현전 이두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편의상 ① ‘-以’형에다 분류하여 둔다.

① ‘-以’형에 속하는 것으로 科科이가 고려 시대 및 조선초에 사용되었으나, 16세기 고문서에는 科科만이 사용되었으므로 달리 분류하였다. 다만, 物物의 경우엔 大明律直解에서만 物物以의 용례가 나타나고, 조선 초기 고문서에서는 物物로 사용되었던 점에서 科科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사류 중 ‘詮次以’를 예로 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중세국어에는 다음의 예 (44)에서 보듯 ‘전차’라는 단어가 있다. ‘전차’는 현대국어의 ‘까닭’에, ‘전차로’는 ‘까닭으로’에 비교적 정확히 일치한다.

(44) 故는 전차라 <訓民正音 諺解本>

이런 전차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홀 배 이셔도 <訓民正音 諺解本>

이 중 ‘전차로’에 대응하는 이두자 ‘詮次以’가 이미 15세기 중엽의 고문서에서 발견된다. 16세기 고문서에서도 (45)와 같은 용례들을 찾을 수 있다.

(45) 拾貳負庫乙 艱難 詮次以 <1519 경주손씨 土地明文2, 정32-416 03>

…積納 不得 詮次以 同 田庫乙 …<1524 경주손씨 土地明文7, 정32-421 04>

그런데, 詮次를 ‘까닭’으로 해석할 수 없는 용례들이 적잖이 발견된다. 『吏讀集成』(223)에서도 ‘詮次’를 ‘順序를 세워, 順序로써’라고 설명한 바가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까닭’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자 본래의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詮’에 대한 다음의 새김들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46) ㄱ. 詮은 ㄹ초니를 씨라 <月印釋譜 序21ㄸ>

ㄴ. 道理 닐은 거시 이 經이오(詮道者 | 是經이오) <月印釋譜 序22ㄸ>

(47) 詮은 이 修多羅 | 니 곧 마리오 <圓覺經諺解 上1-2.13ㄸ>

‘詮’은 (46ㄴ)에서 동사 어간 ‘니르-’(謂), (47)에서는 명사 ‘: 말’(語)로 새겼다. 그러나 ‘詮’의 정확한 새김은 (46ㄱ)에서 보여 준 ‘ㄹ초니르-’ 즉, ‘具說’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詮次’의 ‘詮’은 바로 이 ‘ㄹ초니르-’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詮次’는 원래 동사 ‘詮’과 명사 ‘次’가 복합된 구조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詮次’는 대체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말함’을 가리키며, 이것에 조격 조사 ‘-以’가 통합된 ‘詮次以’는 ‘갖추어 말하는 것으로(써)’라는 의미를 지닌다. (48)에서와 같이 狀啓 등에서 사용된 ‘詮次’는 이런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48) 故敢此再達 詮次 善啓云云<1592 풍산유씨 狀啓, 정15-434 7月初八日 30>

幸得烏墨大半丁 輸上爲白馱乎 事是良尔 詮次以 告課 向教是事 <1593 月谷禹公倡義 遺錄 11 營吏裴贊 告目 8-10>¹⁷⁾

VIII. 마무리

이상으로 매우 소략하게 16세기 고문서에 쓰인 이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走馬看山 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수박겉핥기에 불과하므로, 각 분야 및 항목별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16세기 고문서 중에 이두문으로 작성되었거나 이두가 사용된 것을 문서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民願 및 公證關聯 문서들과 分財 및 賣買關聯 문서들은 이두를 사용하였으나, 告身 및 教令類는 漢文으로 된 것이 압도적이다. 한자로 표기된 명사류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양자가 섞인 혼합어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중 중세국어 ‘厩’의 표기는 ‘庫’와 이것에 발음을 덧붙인 표기 ‘庫叱’이 혼용되었는데, 두 글자를 합친 ‘厩’은 16세기 고문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듯하다. 이들 명사류 표기 한자들은 그 이전 시기로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주격 조사로는 그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亦과 弋只/戈只, 그리고 존칭으로는 教是가 쓰였다. 속격 조사는 矣만이 사용되었다. 대격 조사에 乙, 처격에 良中과 分, 여격에 亦中, 조격에 以가 쓰인 점은 15세기 이두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공동격 조사로는

17) 金炫榮, 『대구월촌단양우씨문서』, 자료편 20쪽, 연구편 133쪽

果 이외에 음운론적 교체에 따른 이표기로 𪗇가 발견되었다.

동사류 吏讀 역시 대체로 그 이전 시기의 것을 이어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세밀히 들여다 보면 다소 차이점이 발견된다. 예컨대, 16세기 고문서에서는 導良 대신에 導亦이라는 표기가 처음 나타난다. 이것은 중세국어의 ‘드되여, 드디여’에서 말음절을 보다 분명히 표기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판단된다. 導亦은 또한 종전과는 달리 대격 조사를 지배하지 않고 체언에 직접 통합되어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어미류 이두 중에는 우선 ‘爲要以’와 ‘爲要乙仍于’의 용례에 쓰인 ‘要’의 기능과 의미를 면밀히 고찰해 볼 대상으로 주목된다. 그리고, 연결어미 ‘-니’에 대응하는 표기자 ‘-昵’가 쓰였음도 눈여겨 볼 만하다.

부사류 이두 중에는 科科以 대신에 科科 만이 16세기 고문서에서 발견되는 점이 눈에 띈다.

이상으로 16세기 이두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살펴 보았으나, 문자 표기에 관한 사항들을 비롯하여, 자료에 대한 고찰, 대명사와 형식명사, 명사류 접미사들, 그리고 否定辭 등에 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했다. 16세기 고문서의 이두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기술을 비롯하여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차후로 미루어 두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16세기 고문서의 종합 정리 작업은 마야호로 吏讀史와 吏讀 辭典 편찬을 위한 기초 발판을 마련한 셈이라 하겠다. 원자료에 충실하게 접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 투고일 : 2003년 12월 5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월 10일.

참고문헌

- 김현영 편, 『大丘月村丹陽禹氏文書』, 한국고문서학회, 1994.
- 서울대학교 도서관 편, 『古文書集眞』, 1972.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고문서집성(Ⅰ)』, 영남대 출판부, 1992.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고문서집성(Ⅱ)』, 영남대 출판부, 1992.
- 이수건 편, 『慶北地方古文書集成』, 영남대출판부, 198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古文書集成(1) -烏川 光山金氏編-』, 198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古文書集成(2) -扶安金氏篇-』, 1983, 199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古文書集成(3) -海南尹氏篇-』, 198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古文書集成(5-7) -義城金氏篇-』,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古文書集成(9) -昌原黃氏篇-』,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古文書集成(15-16) -豊山柳氏篇-』,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古文書集成(32) -慶州孫氏篇-』, 199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古文書集成(33) -載寧李氏篇-』, 199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古文書集成(41-42) -眞城李氏篇-』, 199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古文書集成(49) -固城李氏篇-』, 200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古文書集成(56) -安東晉州河氏篇-』, 2002.
- 강영(1998), 『『大明律直解』 吏讀의 語末語尾 研究』, 국학자료원.
- 高正儀(1992), “大明律直解의 吏讀 研究”,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高正儀(2002), “대명률직해의 이두와 그 특징”, 『口訣研究』 9, 구결학회, 19-72쪽.
- 南豊鉉(1977), “國語 處格助詞의 發達 : 舊譯仁王經의 口訣을 중심으로”, 『李崇寧先生 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탑출판사, 69-93쪽.
- 南豊鉉(1995), “16世紀 古文書의 吏讀文 解讀 二題”, 『韓日語學論叢』, 國學資料院, 395-413쪽.
- 南豊鉉(1997), “借字表記法과 그 資料”, 『國語史研究』, 태학사, 65-95쪽.
- 南豊鉉(2000), 『吏讀研究』, 태학사.
- 南豊鉉(2001), “韓國 古代語의 單母音化에 대하여”, 『韓日語文學論叢』, 태학사,

429-464쪽.

- 노명호 外(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朴盛鍾(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朴盛鍾(2003), “『大明律直解』 吏讀의 예비적 고찰”, 『震檀學報』 96, 289-321쪽.
- 朴英燮(1995), 『國語漢字語彙論』, 박이정.
- 朴在淵(2002), 『中朝大辭典』, 전문대학교 출판부.
- 朴喜淑(1985), “大明律直解의 吏讀研究”,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裴大溫(1984), “朝鮮朝 初期의 吏讀助詞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裴大溫(2003), 『歷代 이두사전』, 형설출판사.
- 徐鍾學(1999), “『忠州救荒切要』의 吏讀”, 『東洋學』 2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安秉禧(1977), “養蠶經驗撮要와 牛疫方의 吏讀의 研究”, 『東洋學』 7, 3-22 쪽
- 安秉禧(1985), “大明律直解 吏讀의 研究”, 『奎章閣』 9, 1-22쪽.
- 安秉禧(1992), 『國語史 資料 研究』, 학연사
- 梁柱東(1946), 『朝鮮古歌研究』, 재판 博文書館 (초판 1942).
- 吳昌命(1995), “朝鮮前期 吏讀의 國語史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吳昌命(1996), “『科擧事目』(1553)의 이두 연구”, 『古文書研究』 9·10집, 한국고문서학회, 169-203쪽.
-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연세대 출판부.
- 李建植(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助詞에 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李基文 譯(1955), 『言語學原論』, 民衆書館(A. Dauz, La Philosophie du Language, 1929).
- 李基文(2003), “國語 語彙史 研究와 隣接 學問”, 『韓國語研究』 1, 태학사, 83-98쪽.
- 李基白 編著(1993),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제2판; 일지사 (초판; 1987).
- 李樹健(1981), 『慶北地方古文書研究』, 영남대 출판부.
- 李丞宰(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 이정민·배영남(1987), 『언어학사전』, 개정증보판; 박영사.
- 李喆洙(1988), 『養蠶經驗撮要의 吏讀研究』, 인하대 출판부.

- 장세경(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조항범(1998), 『註解 순천김씨 묘출토간찰』, 태학사.
鄭求福 外(1997), 『朝鮮前期古文書集成 - 15世紀篇』, 국사편찬위원회.
崔承熙(1989), 『韓國古文書研究』, 증보판; 서울 : 지식산업사 (초판: 1981).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2001), 『원문·역주各司受教』, 청년사.
韓相仁(1993), “大明律直解 吏讀의 語學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허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허웅(1985),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洪起文(1957),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小倉進平(1929),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大.

Terminologie zur neueren Linguistik, Max Niemeyer Verlag, 1974.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Librairie Larousse, 1973.

K C I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Idu*(吏讀) in the Historical Manuscripts of the 16th Century

Park, Seongjong *

This paper aims to make a preliminary study on idu in the historical documents of the 16th century.

Idu sentences or sentences including idu scripts are found in some types of Korean historical documents. These types of documents are as follows ; civil petitions, official endorsements, inheritance and gift documents, contract documents for buying and selling, and so on. Documents for royal or kingly commands are usually written in Chinese sentences, and idu scripts are rarely included in them.

In idu, Korean noun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One group of them belongs to original Korean, and another one group belongs to Korean-Chinese words, and the other group to hybrid words composed of Chinese and Korean. By Korean-Chinese words we mean those words which have been made by Koreans with the medium of Chinese characters from the early period and are not found in Chinese and Japanese or other languages. Koreans have also made their own characters which are united with two Chinese letters or with one Chinese letter and one Korean letter. These characters are made usually to represent Korean words. For example, ‘麤’ represents Korean word ‘곳’(a place) which dates back from Middle Korean ‘곶’. But we cannot find the letter ‘麤’ in 16th century

* Professor, Kwandong University

documents, while we find the corresponding expression ‘庫叱’ from here and there.

Participles in declension which are used in idu of 16th century documents are generally like those in idu before the 16th century. Nominatives are expressed with 亦 or sometimes 弋只/戊只, and nominatives in honorific forms are expressed with 教是. Accusatives are also expressed with 乙, locatives with 良中 or 分, datives with 亦中, and instrumentals with 以. But we can only find 矣 as genitives, and among the comitatives that are usually expressed with 果 there is 臥. This form is considered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clearly representing a phonologically conditioned allophone.

Idus for Korean verbs in 16th century documents are also generally like that before that period, but some differences are detected. For example, we find new expression as 導亦 which is corresponding to 導良 before that period. In 16th century documents 導亦 directly follows noun phrase without the accusative, and 亦 is considered to express a detailed sound of the final ending. Among the idu scripts for Korean verb endings the usage of 要 in ‘爲要以’ and ‘爲要乙仍于’ is questioned. And it is important that ‘-尼’ which is corresponding to Korean verbal ending ‘-니’ is used in 16th century documents.

In idus for Korean adverbs we see a difference that only 科科 is found in 16th century documents instead of 科科以 before that period.

Keyword : idu(吏讀), *chajapyogi* (借字表記),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of the 16th century, idu for Korean nouns, idu for Korean participles, idu for Korean verbs, idu for Korean verbal endings, idu for Korean adverbs